

교내 인도·차도 구분 안돼 '불안한 학교'

전남 초·중·고 10곳 중 6곳 학생들 교통사고 위험 높아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전남지역 초·중·고교 10곳 중 6곳이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교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조차도 학교 안에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지 않은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문을 막 들어선 학생이 교사가 몰던 차량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내 도로·보행로 구분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교육당국이 '예산 부족 타령'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700곳 중 9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었다. 특히 교내에 차량이 오가는 도로가 있음에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걸어도 될 수 있는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학교는 무려 2861곳(30.6%)에 달했다. 전남의 경우엔 더욱 심각했다. 전남도내 학교 중에서 차량 통행로가 있는 674개 학교 가운데 409곳(60.7%)이 인도와 차도

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치다. 광주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지역 학교 내 차량 통행로가 있는 254개 학교 중 89곳(35.0%)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학교조차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의 교내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한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이다. 특히 지난달에야 시·도 교육청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교육부는 구체적인 분리계획은 각 시·도 교육청들이 알아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사실상 예산 마련 등 사업 자체를 시·도 교육청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단 이달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김현아 의원은 "교내 도로와 보행로 구분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아동 성범죄자 318명 달해

광주·전남에 거주중인 아동 성범죄자가 3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광주 117명, 전남 201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복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30명, 남구 18명, 동구 16명, 서구 15명 순이었다. 전남은 목포 45명, 여수 23명, 순천 21명, 광양 20명, 영광 13명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955명, 서울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인천 247명 등 총 7714명의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중이다. 박의원은 "현재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 우편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여성이 거주중인 가구 전체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 거주지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람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간제교사 비율 전국 최고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전남지역 교사 2만1564명 중 2840명(15.2%)가 기간제 교사였다. 광주도 1만6292명 중 2104명(14.8%)이 기간제였다. 기간제 교사 비율로만 보면 전남과 광주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각각 1, 2위를 기록하는 등 일선 교단에서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특히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도 14.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나마 전남은 9.0%로 전국 평균(11.4%)에 약간 못 미쳤다. 전남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겸임 순회 교사가 많고, 육아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이라고 전남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사립학교들이 교사 위탁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승인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산사태 취약지구 2443곳...정밀조사 시급

전남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밀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2443곳이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593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2372곳으로 경북(4497곳), 강원(2779곳)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광주는 71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광주 267명, 전남 56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지자체와 지방청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피해도·지형정보·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집중관리대상지 A·B등급, 관심대상지C등급)을 구분해 위험도가 높은 A·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1ha면적의 산사태가 발생해 3억 6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기 먹고 싶어서"...식당서 돼지고기 훔친 70대 여성

○...홀로 어렵게 사는 70대 할머니가 정육식당에서 평소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를 훔쳤다가 경찰서행. ○...1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학동에 거주하는 A(78) 할머니는 지난달 16일 새벽 2시10분께 평소 자주 지나치던 같은 동네 정육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냉동고에서 12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10여kg를 가져갔다는 것.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A할머니는 "고기가 먹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수 겸 배우 설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매니저가 신고...유서 발견 안돼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사진)가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자택인 성남시 수정구 삼곡동의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최씨가 숨져 있는 것을 최씨의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 매니저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최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로 연락이 되지 않자, 이날 최씨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9년 에프엑스로 데뷔한 최씨는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이듬해 연기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팀에서 탈퇴했다. 그는 현재 JTBC2 예능 프로그램 '악플의 밤' MC로 출연하고 있다. '악플의 밤'은 스타들이 악플에 대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예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자택에서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능 D-30...모의평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4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전국모의평가를 대비해 문제풀이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떠나는 중3생...유입 학생의 4.5배나

5년간 3293명 타지역 진학 지역 인재 유출 심각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광주로 유입되는 학생보다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광주지역 중3 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 소재한 고교로 진학한 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은 ▲2015년 771명 ▲2016년 682명 ▲2017년 709명 ▲2018년 611명 ▲올해 520명 등 최근 5년간 3293명에 달했다. 반대로 다른 시·도에서 광주로 유입된 학생은 ▲2015년 86명 ▲2016년 85명 ▲2017년 206명 ▲지난해 178명 ▲올해 182명 등 737명이었다. 5년간 2556명, 연평균 511명의 중 3학

생이 고교 진학을 위해 타지역으로 순유출된 셈으로, 광주로 오는 학생보다 떠나는 학생이 4.5배가 더 많았다. 김용집 의원은 "광주 학생이 다른 지역 고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면 광주에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인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광주 교육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제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창설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안산 571-7658 · 오지 266-7601
· 동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5-5530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총정 222-8171
남구 · 남부 652-0175 · 백운 651-1833 · 봉선 675-5530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운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침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제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